

-Date: 15 Tammuz 5786 (June 30, 2026)

Torah Portion: Pinchas

Topic: 예루살렘의 밤

코르반 타미드 (קרבן תמיד 상번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올려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되는 행위적 의식이 아니라, 여호와께 다가가는 내면과 외적 예식의 교체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영원한 증거였습니다. 민수기 28 장 3-4 절은 다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준비하고 한 어린 양은 저물때(הערב) 하아르바임; 직역-두 저녁 사이에) 준비할 것이요”

미드라시는 이 상번제가 불러 오는 놀라운 효력을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그냥 품은 채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는 지난 밤에 지은 죄를 대속했고,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는 낮 동안 지은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의 짐을 진 채로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공의가 [예루살렘] 그 도시 가운데에 거하였도다’(사 1:21)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다.”

이 말씀을 정독할때, 다음 같은 한가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왜 미드라시는 이 독특한 축복을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상번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성전에 바치는 반 세겔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출 30:11-16; 미슈나 세카림 4:1) 그러면 온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신하여 올려드려진 제사였기에, 그 대속의 능력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디에 살든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미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르(Gur)의 랍비 아브라함 모르드카이 알터(R' Avraham Mordechai Alter)는 상번제가 지닌 구체적 대속의 영역에 대해 다음 같은 설명을 합니다. 개인의 속죄제(חטאת 하타트)나 속건제(עֲשָׂא 아삼)과 달리, 상번제는 개인적인 제물(קרבן 코르반)을 요구하는 고의적인 범죄를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번제는 사소한 허물, 아리송하고 불확실한 위반, 그리고 퇴폐한 생각을 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은 각 처소에서 거하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알리아(상승)하며,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필요한 개인적 코르반(직의, 다가감; 제물)을 올려드린 사람들만이, 상번제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대속력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번제의 예식은 개인의 심령의 회개와 코르반([여호와께] 다가 감)“으로서, 이미 그 시간에 하나 되도록 시작한 관계를 완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랍비 심하 알터(R' Simcha Alter)는 다른 깊이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를 통하여 대속적 공로를 공유했지만, 그 정결한 상태를 각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모두에게 동일 했던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은 성전의 거룩함, 제사장들의 헌신적 섬김, 레위인들의 찬양, 그리고 여호와와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거룩한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분위기에 잘 몰입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방금 정결함을 얻은 죄들로 인하여 빠르게 다시 타락하며 후퇴하지 않을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코르반, 곧 여호와께 다가가는 심령의 변화를 결과적으로 가져다 주며 영적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랍비 이츠하크 소로츠킨(R' Yitzhak Sorotzkin)은 번제의 또 다른 각도로 이 민수기의 말씀 이해의 초점을 맞춥니다. 현인들은 번제(הֶחֱטִי) 올라)가 특히 “죄악된 생각과 마음의 은밀한 되뇌임”을 대속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이크라 라바 7:3). 이는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영적 투쟁 중 한 문제들을 다루는 방책인 것입니다. “단 하루도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바바 바스라 164b).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는 순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생각의 삶은 끊임없는 정결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번제가 주로 “심중에 가려진 영역”에 관계된 것이었다면, 미드라시의 결론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서 있었던 코르반(제물)이 올려 드러졌던 그 땅 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층 더 넓고 깊은 의미의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린 자들의 심장이 지속해서 “여호와 엘로힘께 다가가는 토라 말씀”으로 연합된 “이스라엘 영혼”이 그 한 성읍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예배자들은 엘로힘의 말씀을 삶으로 마주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토라를 들었으며(신 33:10), 하늘의 은혜 보좌로 올라가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예배의 헌신적 리듬을 목격했습니다. 성소가 서있는 그 물리적인 환경의 분위기 자체가 함께하는 자들을 지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기피는, 왜 심장의 정결 상태가 여호와와 토라를 묵상하는 것과 반복해서 연결되는 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곧 지혜가 네 레브(심장;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네뻬쉐를(영혼을) 즐겁게할 것이요”(잠 2:10)라고 썼습니다. 다윗 역시 “내가 아도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호와와 말씀을 내 심장에 두었나이다”(시 119:11)라고 찬미올립니다. 어두운 에너지에서 돌출된 부정한 생각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서와 정신의 치료 방법은 단순히 그것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지혜-경외-지식의 영으로 그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현인들이 가르치듯, “이 악한 충동이 [생각으로] 너를 만나거든, 그 충동[의 영]을 배움의 집(베이트 미드라시)으로 끌고 가라”(키두신 30b)고 했습니다. 심장과 전두엽을 함께 아우르는 마음이라는 공간은 그냥 비어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절대 진리인 “여호와 말씀”으로 늘 채워져야 합니다.

이 원리는 갱신서 (Renewed Covenant)에도 그 빛을 비추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상번제를 여호와와 마쉬아흐(메시아)의 온전하고 영원한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제시합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달리, 여호와 찌온의 첫 열매, 네짜림 도의 수장이셨던, 예호슈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살아 계신 토라, 그 진리의 말씀이 되시어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히 7:27; 10:11-14). 따라서, 오늘날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고 그의 도를 좇는 중생 받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여호와 엘로힘의 찌온의 첫 열매인 아들을 통하여 제사법의 규례들이 상승 변동된 이후에도, 여전히 거룩하신 영으로 성정을 갱신 받은 참 이스라엘 사명자의 부름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롬 12:2)고 권면하는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명령합니다. 매일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상번제의 지속적인 리듬은 반복되는 동물 제사로서가 아니라, 예호슈아 하마쉬아흐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갱신 언약의 사명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남은 약속 받은 자녀들은 끊임없이 계명 순종의 선한 행위와 기도로서, 여호와 전능하신 자비의 아버지와 매 호흡가운데 교통하는 삶으로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거룩함은 장소를

초월하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대속의 사역을 공유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하신 여호와와 일곱 영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혜-분별-지식의 영으로 인도받아 순종의 감람류로 등잔인 육신을 채워 나갑니다. 이러할 때에, 참 예배의 성소인 그 심장을 정결히 지키며,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상번제 대속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한 용서는 한 순간에 받아 정결함을 얻게 되지만, 그 용서를 받은 자녀들의 그 이후에 연 이은 성정과 행위의 승화는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의 철저한 순종으로써 얻게 하시는 지속적 교제 가운데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도다"(사 1:21)라는 이사야후(이사야)의 선포는 성전이 섰던 물리적인 땅 그 자체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 엘로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영혼의 심장들이 연합된 한 성회입니다. 사람이 그 영적인 "예루살렘"에 머무는 한—곧, 진리인 토라 안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묵상하며, 끊임없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한—상번제가 상징하는 정결의 효력은 그 내면의 사람을 계속해서 예호슈아의 아로마로 빛어줍니다. 따라서, 상번제는 어쩌다 한 번씩 심장이 감동되면 열심을 내는 충동적 행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영원한 진리인 여호와와 계명을 최우선으로 기억하고 지키면서 증거되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 그리고 그 결과로써 성정의 지속적인 갱신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여호와께서 부어 주시는 빛의 권능을 통하여 늘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샬롬.